

# 순창 새뜰마을 사업 완공 눈앞

### 슬레이트 지붕개량, 생활·안전 인프라 등 4개 분야 18억6천만원 투자

순창군이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 본격 착수한 '월곡지구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이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

군은 올해 마지막 3년차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주택가 석축쌓기, 노후·위험 담장 정비, 빈집철거로 수반되는 담장정비 사업 등이 계획된 공정대로 착착 진행해 올 연말에 완공 될 것으로 전망했다.

팔덕면 월곡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급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주민여량 강화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취약요소와 주민 니즈(Needs)에 맞게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51호와 에너지효율화 집수리 21호, 홍물로 방치된 빈집철거 13호, 재해위험지구 도랑 복개(석축쌓기), 마을진입로 확장, 주택가 위험지구 정비, 재래식 화장실 정비, 노후 혈오 시설 정비, 마을 당산 숲 가꾸기, 마을경관조성, 주민여량강화 지원 등에 국비 12억 원을 포함 총 18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가을철 산불예방 비상체제 돌입

### 내달 15일까지 집중관리

임실군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가을철 건조기를 대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태세를 갖췄다.

군은 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2019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 대응기로 했다.

군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군청과 12개 읍·면사무소에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 일환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과 읍·면 산불감시원 65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했다.



임실군이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텟과 연계, 신속하고 정확한 산불 신고체제를 구축했다.

여기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1대를 배치하여 어느 지역이든 1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를 완벽하게 구축 완료했다.

산불비상근무 돌입과 함께 산불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불 의심자의 방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순찰 및 계도활동을 강

화하고 진화대 및 감시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문교육 훈련을 실시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산불진화 차량과 산불진화 장비를 철저히 점검해 즉각적인 출동 및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산불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노후 용배수로 시공 간담회

남원시는 지난 4일 농정과 사무실에서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공사 도급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남원시는 올해 도비 50%, 시비50% 매칭사업으로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사업에 18억 연장 7km에 대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급업체 19개 대표 및 현장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과 시공시 주의사항에 대해 당부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공사현장에는 반드시 안내간판을 설치해 공사명, 발주처, 시공업체 연락처 등에 대

해 누구든 공사의 실명을 알 수 있게 설치하고, 안전조치, 견실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의 주민 대응 시 현장 방장(색깔이 다른 조끼 착용)을 두어 공사현장의 민원창구 일원화로 민원이 즉시 처리되도록 요청했다.

이준무 농정과장은 "시는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가족뮤지컬 '어른동생'이 오는 9일과 10일 순창을 찾는다.

# '가족뮤지컬 어른동생' 순창 공연

### 만 3세 이상 관람 가능, 9~10일 오후 4시

가족뮤지컬 '어른동생'이 오는 9일과 10일 순창을 찾는다. 이번 공연은 순창군의 민간 소공연장인 소소극장의 첫 번째 오픈 공연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9일과 10일 각각 오후 4시에 시작해 1시간 가량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로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다. 관람연령은 만 3세이상으로 부모와 함께 보면 좋은 가족 뮤지컬이다.

순창문화관광공작소가 주관하고 농업회사법인 나귀야놀자가 후원해 성사된 이번 공연은 순창군이 아이 키우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자 유치했다.

이번 상연될 공연인 어른동생은 송미경 작가의 '어편이'를 원작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후기 평점에서 관람객들에게 좋은 점수를 얻고 있다.

특히 원작인 '어편이'가 북트러스트 올해의 외국 도서 한국 최초 최종 후보작 선정과 한국출판문화대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아 탄탄한 즐거움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최소 상연을 시작으로 2년 동안 서울 대학로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현재까지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인기 또한 보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서울 대학로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공연인 만큼 관내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오는 주말에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보건소, 아동학대 예방·관리 현장 점검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는 6일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에 대해 시도·보건소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것으로,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보수교육 실시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이며 특히,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유사사례 및 주요 불만민원 사례를 전수 조사한다.

또한, 11월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강화 대책을 반영해 보건소, 사회서비스 누리집 등에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며, 위반사항은 엄중 처분(경고~등록취소) 및 필요 시 고발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순례 남원시보건소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강화는 물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지역 매아리

### 남원, 명품 후지사과 수확준비 한창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이른 올 추적으로 명절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수확시기를 앞두고 내린 잦은 비와 잇따라 발생한 태풍으로 흉로사와 판매의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에서 고품질 후지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의 사과 후지품종은 지리산 청정 자연환경에서 생산되어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사과 고유의 향과 빛깔이 곱고 과육이 단단해 저장성이 뛰어나다.

산동지역을 시작으로 윤봉, 인월, 아영, 산내에서 수확되는 '후지'는 사과 농가에 올 농사를 만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에 적극적인 사과 소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문수옥 현장지원과장은 "남원의 후지품종 사과는 맛이 좋은 것은 물론 영양이 풍부해 사과의 대표주자라며, 제철인 사과 많이 드시고 건강한 환절기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2018년 쌍계지구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순창군이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쌍계면 쌍계지구(반계마을 일원)의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군은 최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정순원 판사 주재로 순창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하여 쌍계면 쌍계지구 76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심의 완료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의가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사업지구인 복흥면 정산지구(정동, 비거마을 일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국. 지적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현지 측량을 마친 후,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임시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제반 절차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20년도에는 예산 4억 7천만원을 확보하여 인계, 유등, 적성 3개면소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화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식권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